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의 통상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3월 뉴욕 비즈니스 활동 하락
- WSJ: 2월 미 소매 판매는 상승했으나 예상치 미흡
- Bloomberg: 연준, 금리 정책 관련 '대기 모드' 상태

#### [미 관세 정책]

- Bloomberg: 트럼프, "상호 관세와 특정 산업 관세 4월 2일부터 시행"

#### [오일]

- YahooFinance: 골드만 삭스, 미 성장률 둔화 예상으로 오일가 하향 목표"

#### [미중 경제]

- WSJ: 미국, 중국 선박의 미 제품 선적 방향 바꾼다
- CNNBusiness: 중국, 트럼프 관세에 내수 촉진안 발표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펩시코,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 포피를 약 19억 5천만 불에 인수
- Bloomberg: BYD, 5분 만에 전기차 충전 초고속 배터리 시스템 공개
- WSJ: 일본제철과 US 스틸 합병 관련 소송 기간 연장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Business Activity in New York Fell in March

##### 3월 뉴욕 비즈니스 활동 하락

- 오늘 월요일 발표된 뉴욕 제조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뉴욕 비즈니스 활동이 상당히 감소했다. 2월에는 증가했는데 3월 들어 감소하면서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줄어들었다.
- 뉴욕 지역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커졌으며 자본 투자 지출 계획도 둔화된 상태다.
- 이날 발표된 뉴욕 연준이 측정하는 3월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2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20.0을 기록했다. 신규 주문은 2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14.9, 출하지수는 23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8.5로 나타났다.

WSJ 기사

#### WSJ: Retail Sales Edge Up in February but Miss Expectations

## 2월 미 소매 판매는 상승했으나 예상치 미흡

- 미 소매판매가 약간 성장했다. 미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했지만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월 소매 판매는 1월에 비해 계절 조정치로 0.2% 상승했다고 오늘 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발표했다. 전문가의 0.6% 상승 기대에는 못 미쳤다.
- 1월의 소매 판매는 1.2%로 하향 조정됐다.
- 2월 전체 판매는 0.3%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딜러의 판매량이 감소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The Fed Is in Wait-and-See Mode. Investors Want Reassurance It Will Act If Needed** 연준, 금리 정책 관련 '대기 모드' 상태

- 현재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번 주에 두 가지 목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들이 필요하다면 통화 조정 정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달 금융시장이 흔들렸다.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로 국채 금리도 역시 하락했다.
- 현재 연준은 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 반면에 이코노미스트들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이 흔들릴 경우 연준이 금리 조정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 관세 정책]

#### **Bloomberg: Trump Says Both Reciprocal and Sectoral Tariffs Coming April 2** 트럼프, "상호 관세와 특정 산업 관세 4월 2일부터 시행"

-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 관세와 추가로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관세를 4월 2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흔들리는 금융시장과 동맹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격적인 관세 시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트럼프는 자국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의약품 분야의 산업을 진작시키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그는 이 같은 특정 산업의 관세가 상호관세에 포함될지 아니면 따로 시행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 [오일]

#### **YahooFinance: Goldman Sachs lowers oil price target on expectations of slower GDP growth**

#### **골드만 삭스, 미 성장률 둔화 예상으로 오일가 하향 목표”**

-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골드만 삭스는 올해 오일 가격 목표를 하향 전망했다.
- 골드만삭스는 오는 12월에 브렌트 가격이 배럴당 5달러 하락한 71달러로 예상했다. 브렌트유는 올해 들어 3% 감소했다.

YahooFinance 기사

### [미중 경제]

#### **WSJ: Chinese Ships Are Carrying America's Cargo. The U.S. Wants to Reverse That.**

#### **미국, 중국 선박의 미 제품 선적 방향 바꾼다**

- 지난 2002년만 해도 중국의 조선의 글로벌 상업 선박 생산 톤수가 8%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53%에 달한다.
- 미 USTR은 지난달에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제조 선박에 최대 1백50만 불의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작년에 미국 건조 선박은 글로벌 선박 톤수의 0.1%에 불과하고 중국은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의 2백3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 이제 미국의 목표는 스위스의 대형 해운회사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와 덴마크의 해운회사 A.P. Moller-Maersk등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선박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미 입항 중국 선박을 이용할 경우 입항료가 각각 20억 불, 12억 불이 될 것으로 CSIS는 추정하고 있다.

WSJ 기사

#### **CNNBusiness: China unveils plan to boost consumption as Trump tariffs bite**

#### **중국, 트럼프 관세에 내수 촉진안 발표**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내수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소득 증대, 육아 보조금 제도 도입, 차량과 전자제품 등 노후 상품 교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고 밝혔다.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4.0%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기준 전년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0% 인상, 이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보복 관세를 발표 하며 무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PepsiCo to Acquire Prebiotic Soda Brand Poppi for \$1.95 Billion** **펩시코,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 포피를 약 19억 5천만 불에 인수**

- 펩시사는 장 건강에 좋은 음료로 알려진 포피(Poppi)를 약 19억 5천만 불 (약 3억 달러의 세금 혜택 포함)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통적 탄산 음료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웰니스 음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 펩시와 코카콜라는 팝피와 경쟁 브랜드 올리팝(Olipop)이 주도하는 장 건강 탄산음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심플리 팝'을 출시할 예정이며, 펩시코도 봄에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인 Robert F. Kennedy Jr.가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은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아칸소주는 SNAP(식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탄산음료 구매 제한을 추진 중이며, 미국 음료 협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BYD Unveils Battery System That Charges EVs in Five Minutes**

#### **BYD, 5분 만에 전기차 충전 초고속 배터리 시스템 공개**

-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BYD는 새로운 초고속 충전 및 배터리 시스템을 공개했다. 시스템 테스트에서 5분 만에 470km 주행이 가능한 전력을 충전할 수 있었으며, 해당 기술을 탑재한 Han L과 Tang L SUV 차량은 4월부터 판매된다.
- BYD는 새로운 충전 기술에 맞춰 4,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 BYD는 지난달 31만 8천 대의 승용차를 판매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161% 증가했다. BYD는 고성능 EV 플랫폼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 **WSJ: Nippon Steel, U.S. Steel Lawsuit Gets Extension to Continue Government Negotiations**

#### **일본제철과 US 스틸 합병 관련 소송 기간 연장**

-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미국 정부로부터 정부와의 합병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소송 기한을 21일 연장받았으며, 구두 변론은 4월 24일에서 5월 12일로 미뤄졌다.
-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를 발표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검토 결과로 바이든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합병을 차단했었다.
- 양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 주의 노동자 표를 얻기 위해 합병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본제철이 US스틸에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WSJ 기사

[보고서]

## 약달러? 강달러?... "트럼프 국제질서 재편에 달러 방향성 시험대"

**WSJ "대선 직후 관세보다 감세·규제 완화에 방점"... 월가, 美성장 낙관 관세전쟁 격화에 '弱달러 정책' 부각... 일각선 "弱달러 쉽지 않아"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십 년간 유지돼온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 달러화 가치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지난 14일 99.26으로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일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앞서 달러화 가치는 지난해 대선일 이후 강세 랠리를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예고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공화당 정권의 전통에 맞춰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게 경제계 안팎의 기대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